

숫자로 살펴보는 우리말

2022

Korean Language In Numbers



국립국어원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기획·구성 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

디자인·제작 더크리홍보주식회사

2022 숫자로 살펴보는 우리말 2022 KOREAN LANGUAGE IN NUMBERS

발행 2022년 5월 31일

발행인 장소원

발행처 국립국어원 www.korean.go.kr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우)07511

이 책의 저작권은 국립국어원에 있습니다.

Copyright ©2022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숫자로 살펴보는 우리말

2022

Korean Language In Numbers



국립국어원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펴내는 말

1991년에 설립되어 올해 서른한 돌을 맞이한 국립국어원은 어문 정책과 관련한 연구를 주관하는 한편, 국민들이 언어생활을 바르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한류가 확산함에 따라 한국어의 위상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8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고 새로이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의 수도 기록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아울러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정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어 지식 정보량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세계 속에서 성장하는 모습이 자랑스롭습니다.

한국어의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우리말을 가꾸고 보존하려는 노력도 전보다 더욱더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언어 공동체 구성원들이 더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공감하는 언어문화를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말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준비도 해야 합니다. 국립국어원은 한국어를 국민의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언어, 세계로 힘차게 뻗어 나가는 언어로 가꾸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어문 정책을 펴려면 언어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정리하여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동안 국립국어원에서는 우리말과 관련한 정책 자료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숫자로 살펴보는 우리말》을 발간해 왔습니다. 2010년부터 4년마다 펴내어 이번에 네 번째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말은 물론이고, 한국 수어와 점자가 포함된 정책 자료를 수치화하고 정보 그림으로 시각화하여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숫자로 살펴보는 우리말》이 우리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널리 확산하고, 과학적인 어문 정책을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5월

국립국어원장 장 소 원

1		
국어사전 사용 실태		4
2		
'모두의 말뭉치' 구축 및 이용 현황		6
3		
세계 속 한국어		8
4		
국내의 한국어 교육		10
5		
우리말에 대한 관심		12
6		
공공언어에 대한 인식		14
7		
표준어와 지역어		16
8		
우리 국민의 국어 능력 실태		18
9		
특수 언어, 수어와 점자		20
10		
국어가 궁금할 때는 국어친구		22

1. 국어사전 사용 실태

1

국어사전 올림말의 어종별 현황

표준국어대사전 전체 올림말의 수 (2022년 5월 기준)

422,89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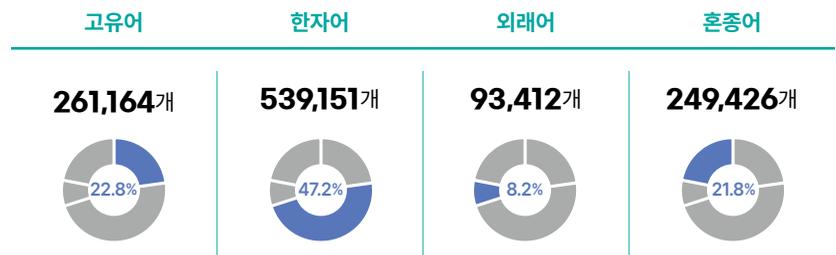
표준국어대사전 어종별 현황



우리말샘 전체 올림말의 수 (2022년 5월 기준)

1,143,153개

우리말샘 어종별 현황



국어사전 올림말의 어종별 점유율은 한자어 > 혼종어 > 고유어 > 외래어 순서로 나타났으며, “우리말샘”의 올림말을 기준으로 할 때 한자어는 47.2%, 고유어는 2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누리집 stdict.korean.go.kr
우리말샘 누리집 opendict.korean.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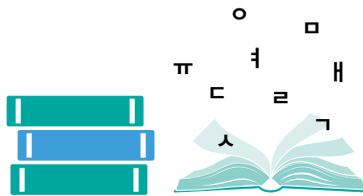
* “우리말샘”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올림말을 등록하고 편집할 수 있는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입니다.

2

국어 사전 사용 실태

국어사전을 자주 사용하는지에 대한 응답 (2020년 기준)

16.6%



대체로 그렇다 16.4%

매우 그렇다 0.2%

국어사전 사용의 주된 목적

표준어, 맞춤법을 확인하기 위해서

53.4%

단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45.9%

단어의 원어(한자, 외래어)를 알기 위해서

27.9%



국어사전을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은 16.6%, 국어사전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4.9%로, 평소 국민들은 국어사전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어사전을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표준어, 맞춤법을 확인하기 위해서'(53.4%)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45.9%), '단어의 원어(한자, 외래어)를 알기 위해서'(27.9%)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중복 응답 기준)

출처: 『2020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2020, 국립국어원

2. '모두의 말뭉치' 구축 및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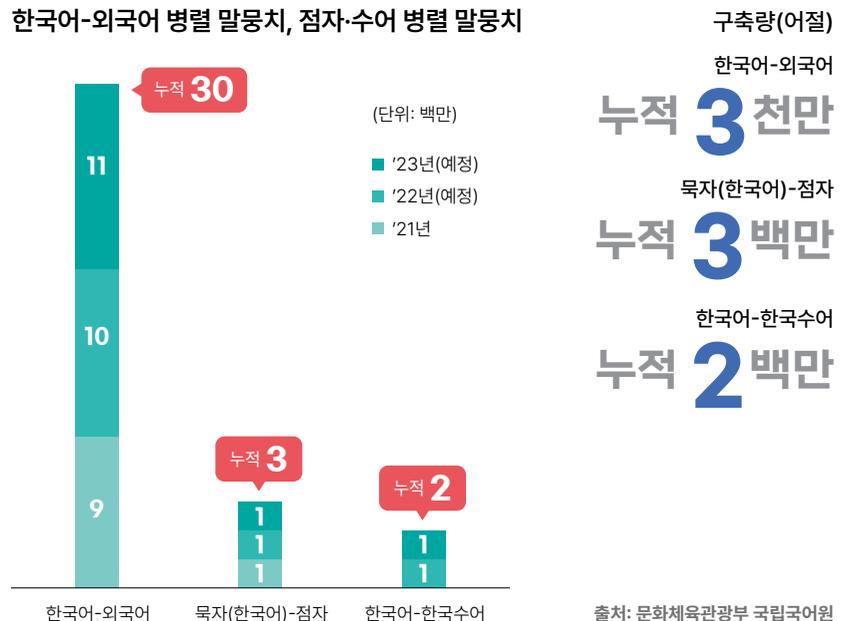
1

'모두의 말뭉치' 구축 현황

4차 산업혁명 대비 국어 빅데이터 구축



한국어-외국어 병렬 말뭉치, 점자-수어 병렬 말뭉치



'말뭉치'란 '컴퓨터로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언어 자료를 모아 놓은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말뭉치는 언어 학습 모델, 자동 통번역 앱, 음성 인식, 챗봇 상담, 수어 교육 앱, 점역(글자→점자)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등 활용 분야가 다양합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국어 말뭉치, 한국어-외국어 병렬 말뭉치, 목자-점자 병렬 말뭉치, 한국어-한국수어 병렬 말뭉치 등 다양한 말뭉치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

'모두의 말뭉치' 이용 현황

모두의 말뭉치 누리집

corpus.korean.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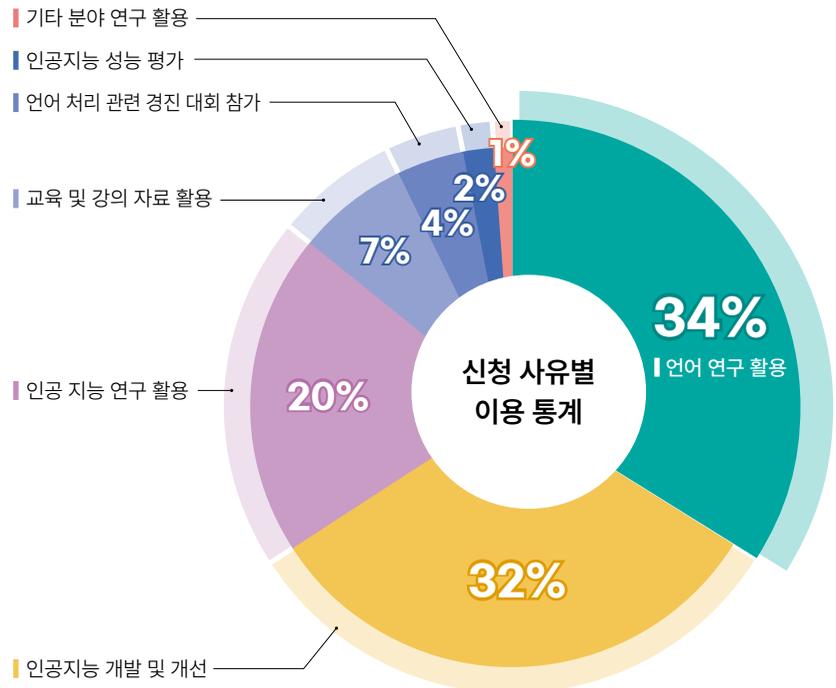


누리집 누적 방문자 수 (2022년 3월 기준)

67,827명

누적 페이지 조회 수 (2022년 3월 기준)

321,798건



국립국어원에서는 누구나 말뭉치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32종, 24억 어절의 말뭉치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말뭉치 누리집(corpus.korean.go.kr)에서 필요한 말뭉치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고, 말뭉치와 관련된 의견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말뭉치 활용 목적은 '언어 연구 활용(34%)', '인공 지능 개발 및 개선(32%)', '인공 지능 연구 활용(20%)'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3. 세계 속 한국어

1

사용자 수로 본 한국어의 순위

순위	언어	사용자 수 (백만 명)
1	영어	1,500
2	표준 중국어(만다린)	1,100
3	힌디어	602.2
4	스페인어	548.3
5	프랑스어	274.1
⋮		
 한국어		 81.7 백만 명

2

전 세계 한국어 교육기관 현황



지구상에서 쓰이는 수천 가지 언어 중에서 사용 인구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길 때 한국어는 23위라고 합니다(2022년 2월 기준).

출처: 에스놀로그(Ethnologue) 누리집 www.ethnologue.com

우리는 한국어에 자긍심을 갖고 이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종학당, 한국교육원, 한국학교, 한글학교 등 세계 곳곳의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세종학당 현황(2021년 6월 기준)-세종학당재단 누리집, 한국교육원 및 한국학교 현황(2020년 4월 기준)-재외교육 기관 포털, 한글학교 현황(2021년 5월 기준)-재외동포재단 스테디코리안 누리집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세계 곳곳의 한국어 교육기관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자와 관련 교육 기관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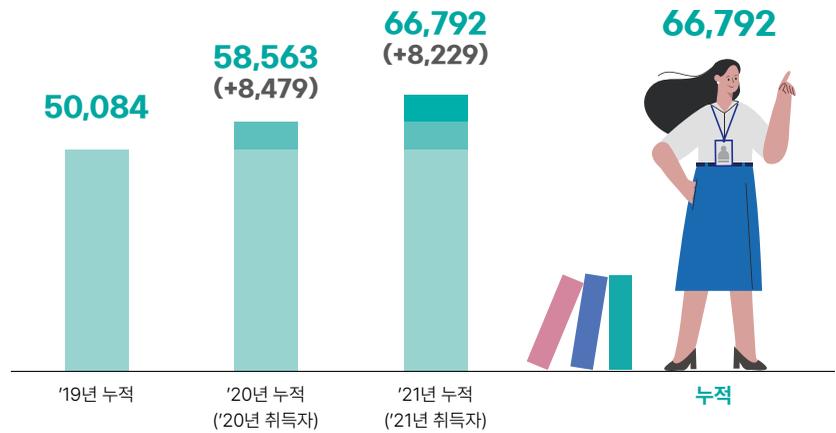
3

한국어교원 관련 통계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자 (2021년 기준)

66,792명

(단위: 명)



한국어교원 양성 기관 (2021년 기준)

총 525개출처: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kteacher.korean.go.kr

*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4. 국내의 한국어 교육

1

다문화 학생 수와 비율

초·중·고등 학생 중 다문화 학생의 수 (202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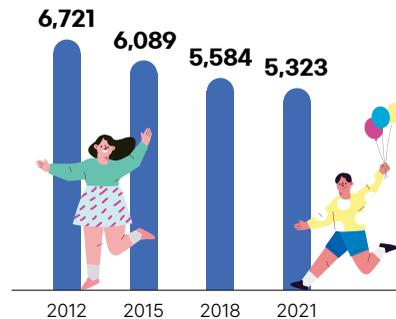
159,628명

전체 학생 수 대비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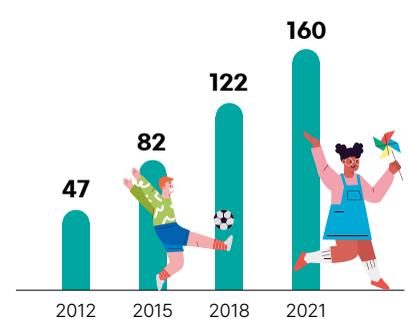
전체 학생 수

(단위: 천 명)



다문화 학생 수

(단위: 천 명)



2

결혼이민자 수

결혼이민자 수(2020년 기준)

168,594명



다문화 학생은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국제결혼 가정의 학생이나 외국인 가정 자녀를 말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초·중·고교 학생 수는 2018년 대비 4.7% 감소한 반면에 다문화 학생 수는 31% 증가했습니다. 다문화 학생 수는 2012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2021년 기준 초·중등 학생 중 다문화 학생의 비율은 3.0%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2021년 교육기본통계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1. 8. 26., 교육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결혼이민자 수는 168,594명이며, 성별 비율은 여성이 81.8%, 남성이 18.2%입니다.

결혼이민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35.6%)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베트남(26.1%), 일본(8.7%), 필리핀(7.1%) 순서로 많습니다.

출처: "2020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2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

유학생 및 외국인 노동자 수

유학생 및 외국인 노동자 수 (2020년 기준)

605,658명



유학생 수
153,361명



외국인 노동자 수
452,297명

출처: 『2020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2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

국내 한국어교육 관련 기관 현황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원
(2022년 기준)

총 197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
(2022년 기준)

총 230개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수
(2022년 기준)

총 1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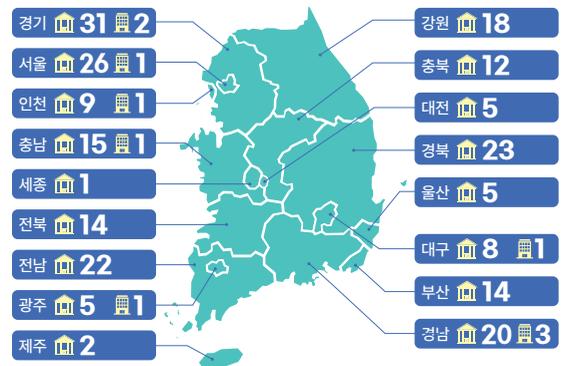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수
(2020년 기준)

총 348개

다문화가족·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전국적 분포
현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출처: 스테디인코리아 누리집 www.studyinkorea.go.kr /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누리집 www.liveinkorea.kr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누리집 k.migrantok.org / 『2020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2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최근 국제결혼과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로 다문화 가정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를 미처 학습하지 못하여 의사소통과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결혼이민자와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결혼이민자를 위해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수는 전국에 23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국어교육을 하는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도 전국에 10개가 있습니다.

또한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 데 필수적인 기본 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입 첫해인 2009년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이 20개에 불과하였으나 현재는 300개 이상의 기관이 운영 중입니다.

5. 우리말에 대한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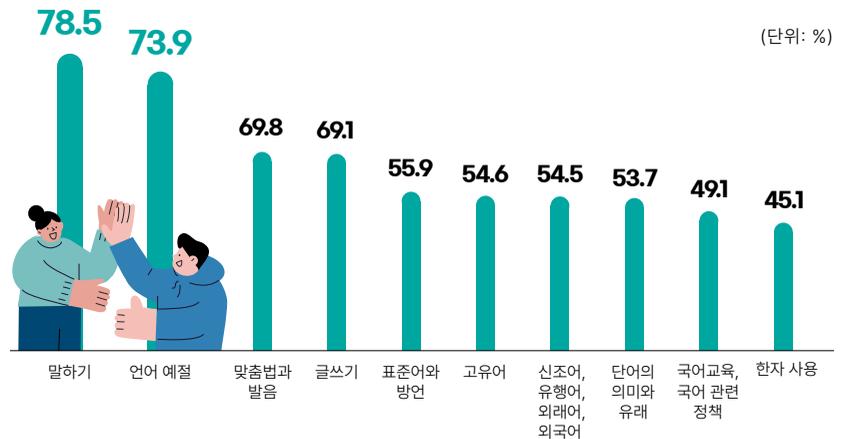
1

국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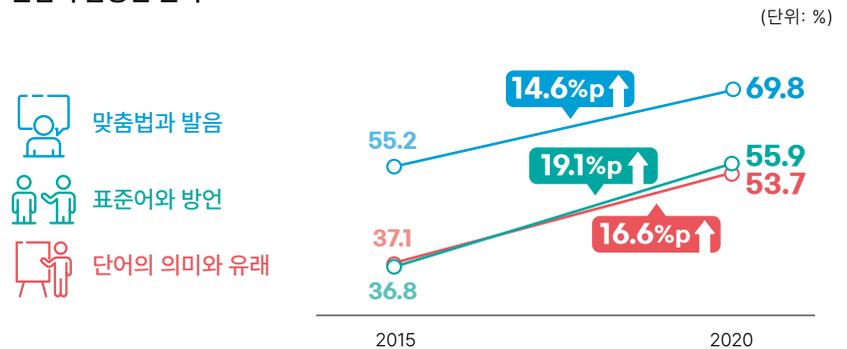
국어에 대한 관심도 (2020년 기준)

55.4%

국어 관심 분야



관심이 급증한 분야



2020년 기준 국어에 대한 관심도는 55.4%로, 2010년 이후 국어와 국어 사용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어 분야 중에서는 말하기(78.5%)와 언어 예절(73.9%) 분야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표준어와 방언'(최근 5년 사이 19.1%p 증가), '단어의 의미와 유래'(최근 5년 사이 16.6%p 증가), '맞춤법과 발음'(최근 5년 사이 14.6%p 증가)이 최근 국민 관심이 급증한 분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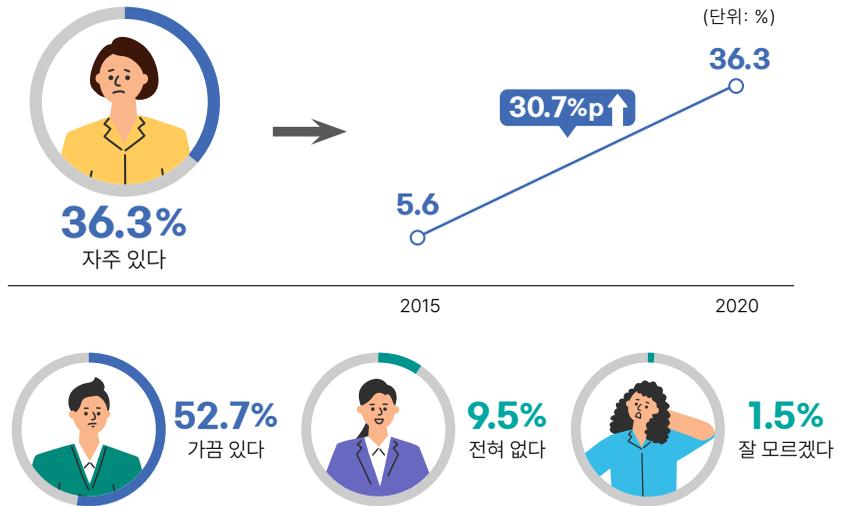
출처: 『2020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2020, 국립국어원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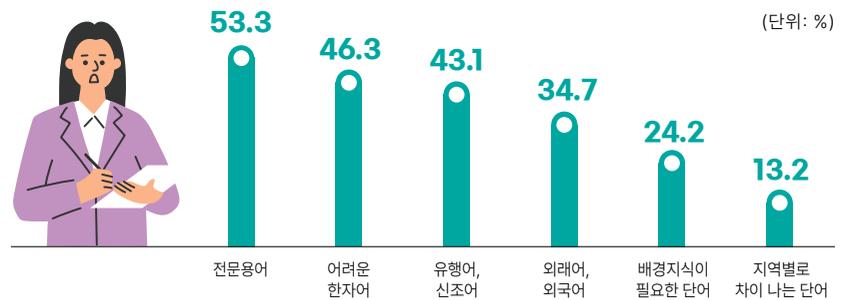
신문·방송에 나오는 말의 의미를 몰라 곤란했던 경험

곤란했던 경험이 있다 (2020년 기준)

89%



의미를 몰라서 곤란함을 겪은 말



국민의 89%는 신문·방송에서 나오는 말 중 의미를 몰라 곤란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가끔 있다: 52.7%, 자주 있다: 36.3%). 곤란했던 경험이 자주 있다는 응답은 최근 5년 사이 30.7%p 증가했습니다.

신문·방송에서 나오는 말 중 곤란함을 겪은 말의 분야로는 전문용어(53.3%), 어려운 한자어(46.3%), 유행어·신조어(43.1%)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2020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2020, 국립국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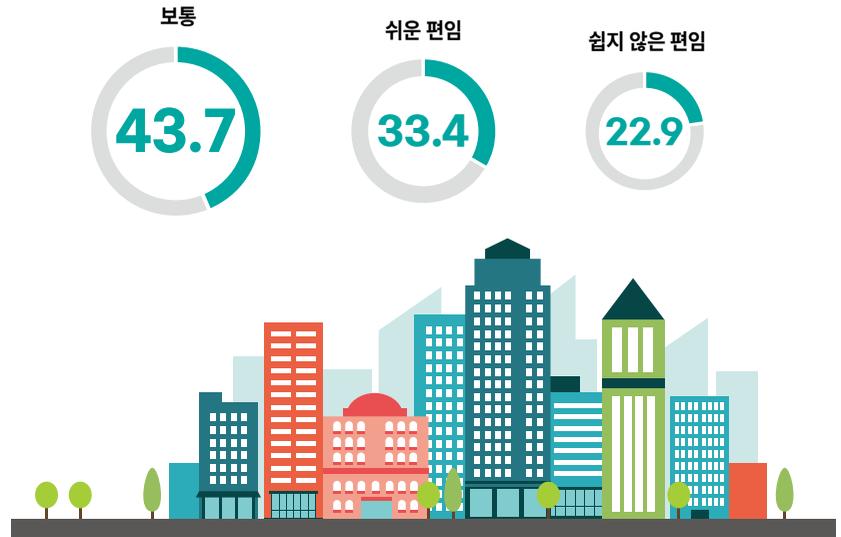
6. 공공언어에 대한 인식

1

공공기관 언어의 난이도 수준과 최우선 개선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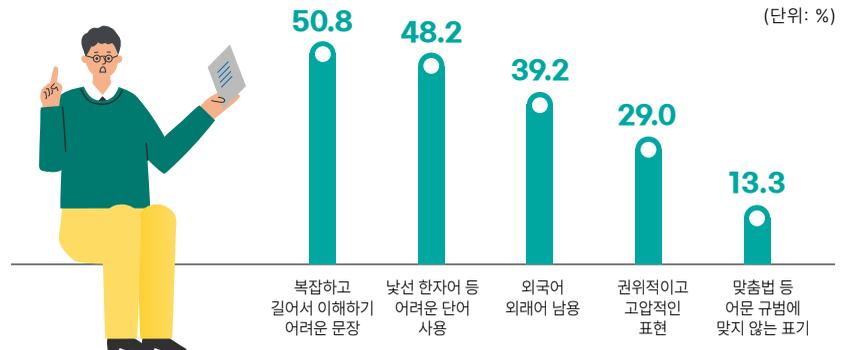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수준 (2020년 기준)

(단위: %)



공공언어에서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부분 (2020년 기준)

(단위: %)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수준을 조사한 결과 쉬운 편임(33.4%), 쉽지 않은 편임(22.9%)보다 보통임(43.7%)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공언어에서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복잡하고 길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50.8%), '낮선 한자어 등 어려운 단어 사용'(48.2%)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왔습니다.

출처: 『2020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2020, 국립국어원

2

공공언어 개선의 경제적 효과

시간 비용 절감 효과 (2021년 기준)

민원 서식 용어 개선

연간 **1,952**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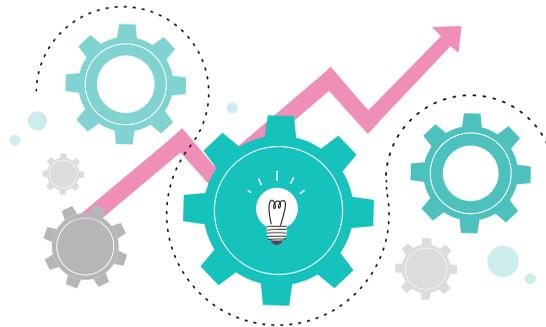
정책 용어 개선

연간 **753**억 원

약관, 계약서 용어 개선

연간 **791**억 원

공익적 가치 (2021년 기준)

연간 **3,375**억 원

* 공익적 가치: 공공언어 개선에 따른 스트레스 저감, 정확한 정보 전달, 정부 업무의 효율성 향상 등 공공언어 개선의 공익적 기능이 지닌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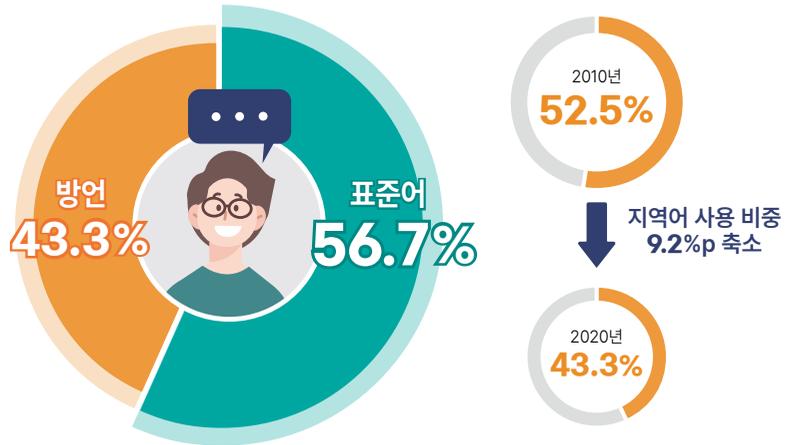
공공언어 개선의 경제적 효과를 조사한 결과, 민원 서식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를 개선할 경우에 연간 약 1,952억 원, 정책 용어를 개선할 경우에 연간 약 753억 원의 시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공공언어 개선의 공익적 가치를 추정한 결과, 1인당 연간 7,833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전 국민 단위로 확대한 결과 연간 약 3,375억 원에 달하는 공익적 가치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공공언어 개선의 정책효과 조사 연구』, 2021,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연구 기관: 현대경제연구원)

7. 표준어와 지역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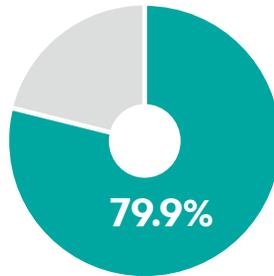
평소 사용하는 말 중
표준어 비중
(202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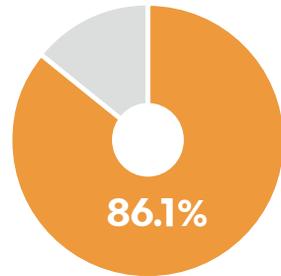
2

방언 사용에 대한 인식
(2020년 기준)

방언 사용자와 대화 시 친근함을 느낌



본인의 방언 사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



2020년 기준으로, 평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로는 표준어(56.7%)가 방언(43.3%)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일상생활에서 지역어 사용 비중이 10년 만에 9.2%p 축소(2010년 52.5%→2020년 43.3%)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은 방언 사용자와 대화할 때 친근하다고 느끼며(2020년 79.9%), 본인의 방언 사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23.7%p 증가했습니다.

출처: 『2020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2020, 국립국어원

3

국립국어원 지역어 종합 정보 누리집 현황

지역어 종합 정보 누리집

dialect.korean.go.kr



지역어 항목 수



16만 개

지역어 지도



104장

지역어 이야기 자료



50시간

문학 속 지역어



2,012 항목

사진으로 보는 생활어

764 항목
1,033장

4

북한 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필요성과 그 이유

북한 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

44.9%

북한 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 (2020년 기준)



44.2%

통일되었을 때 언어 차이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29.7%

북한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26.0%

북한과의 지속적 협력 관계를 위하여

'지역어 종합 정보 누리집'은 국립국어원이 축적한 다양한 지역어 정보들을 누구나 쉽게 검색하여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 누리집입니다. 전국 131개 시군의 지역어와 음성, 지역어 지도와 해설, 지역어 이야기 자료와 음성, 문학작품 속 지역어와 예문, 전통 직업 생활어와 사진 등을 포함한 지역 언어문화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출처: 지역어 종합 정보 누리집(dialect.korean.go.kr)

국민들의 44.9%는 통일을 고려하면 우리 국민들도 북한 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국민들이 북한 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통일되었을 때 언어 차이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44.2%)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북한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하여'(29.7%), '북한과의 지속적 협력 관계를 위하여'(26.0%)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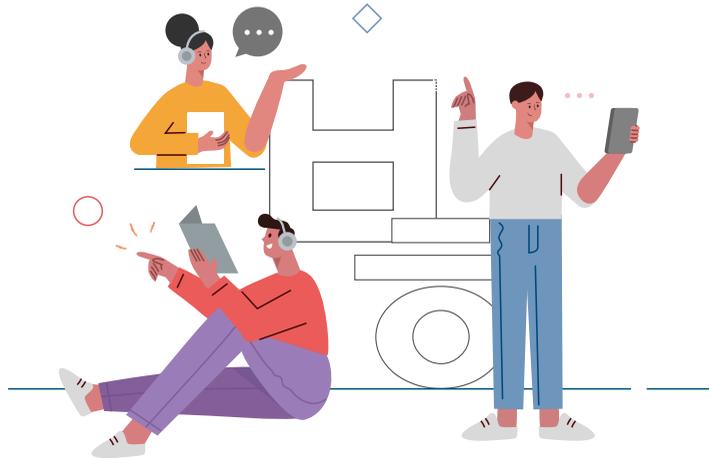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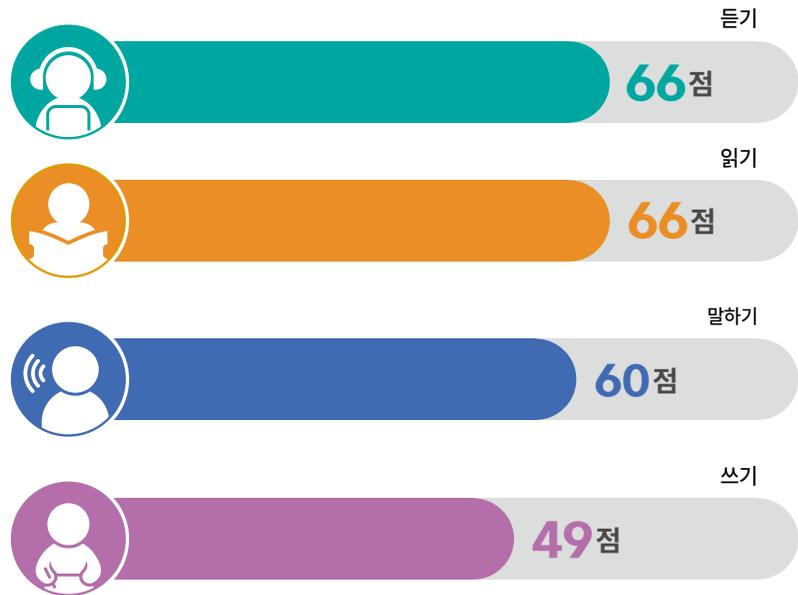
출처: 『2020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2020, 국립국어원

8. 우리 국민의 국어 능력 실태

1

국민의 영역별 국어 능력

영역별 평균 점수



2018년 국민의 국어 능력 실태 조사(조사 대상: 만 20세~69세의 성인 남녀 5,500명)에 따르면 쓰기 능력 평점이 49점(100점 만점으로 환산 시)으로 나타나, 국민의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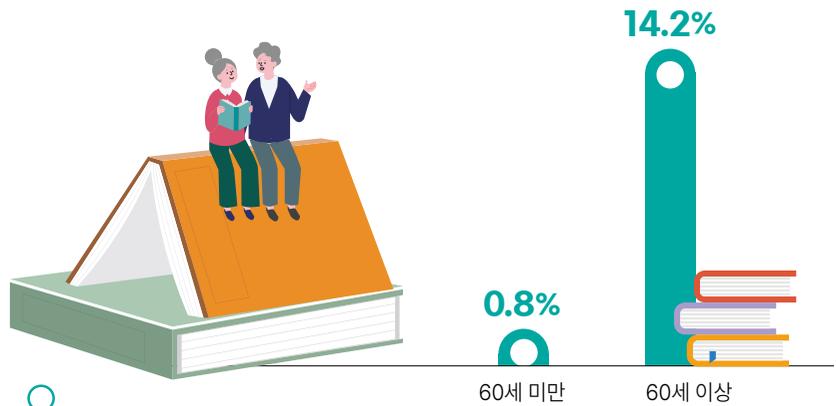
출처: 『2018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2018, 국립국어원

2

성인의 문해 능력

비문해 인구 비율 (202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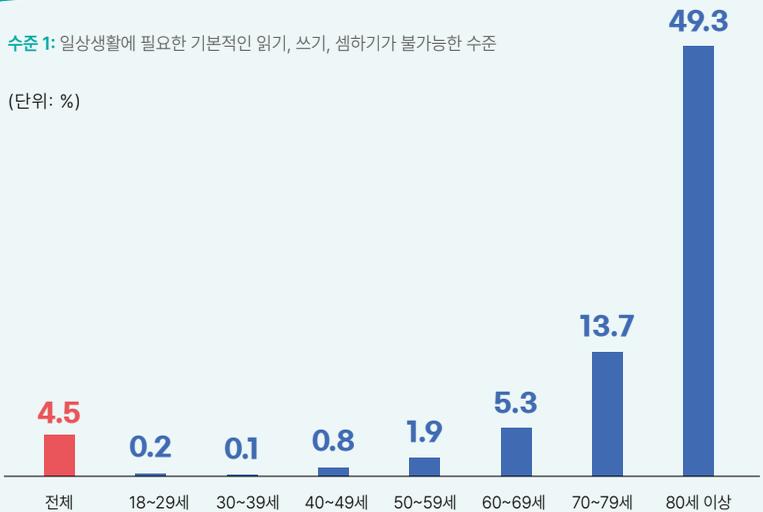
* '수준1'에 해당



수준 1

수준 1: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한 수준

(단위: %)



2020년 성인문해능력조사(조사 대상: 만 18세 이상 남녀 10,429명)에서는 60세 이상 인구의 14.2%가 '수준 1'에 해당하는 비문해 인구로 분류되어 60세 미만 인구의 0.8% 대비 비문해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표현 및 문해 능력의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정책은 전 연령대에 걸쳐 꾸준히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특히 60대 이상 연령대에 속한 국민들이 교육을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교육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2020년 성인 문해 능력 조사』, 202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9. 특수 언어, 수어와 점자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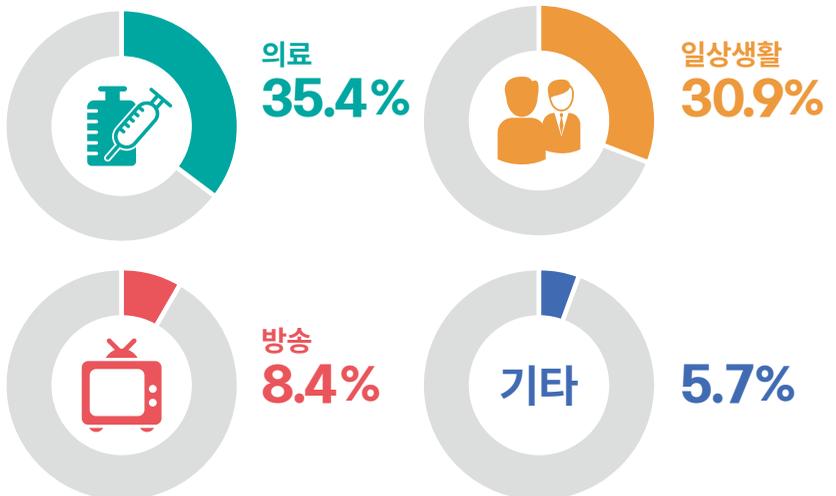
수어통역 서비스 경험 유무

(청각장애(심한 장애)가 있는
20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539명 대상)



2

수어통역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영역



청각장애(심한 장애)가 있는 20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539명을 대상으로, 수어통역사로부터 수어통역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해당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53.6%로 나타났습니다.

수어통역이 우선으로 필요한 영역을 조사한 결과, 의료 35.4%, 일상생활 30.9%, 방송 8.4%, 기타 5.7%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2020년 한국수어 활용 조사』, 2020, 국립국어원

3

점자 표기가 가장 시급한 시설

순위	시설
1	 현관문 잠금장치의 숫자판
2	 (엘리베이터 인접 벽면의 상하 버튼 근처) 건물 각 층별 숫자 표시
3	 공공건물의 주요실 위치 정보
4	아파트, 연립 주택의 호실 표시
5	화장실 구조 표시
6	공중화장실 세면대 수도꼭지 작동 형태
7	출입 금지 표시
8	누름 버튼식 자동문의 누름 버튼
9	도서관 열람실의 좌석 번호

점자 표기가 시급히 요구되는 시설 중 1위는 '현관문 잠금장치의 숫자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은 '건물 각 층별 숫자 표시', 공공건물의 '주요실 위치 정보'의 순서였습니다. 일상생활 곳곳에 점자 표기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2020년 점자표기 실태 조사』, 2020, 국립국어원

10. 국어가 궁금할 때는 “국어친구”

1

국립국어원 국어 관련
상담 연락처

<p>누리소통망(SNS)</p>  <p>카카오톡 ‘우리말365’</p>	<p>가나다전화</p>  <p>1599-9979</p>	<p>온라인가나다</p>  <p>www.korean.go.kr</p>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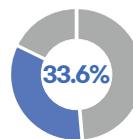
2

국어 관련 상담 현황

연도별 상담 건수

연도	매체	누리소통망(SNS) 우리말365	가나다전화	온라인가나다	합계
2017년		116,435	72,924	41,537	230,896
2018년		115,086	91,920	42,044	249,050
2019년		104,864	76,744	35,107	216,715
2020년		106,623	70,228	38,354	215,205
2021년		96,354	59,139	37,960	193,453
건수		539,362	370,955	195,002	1,105,319

비율



3

연도별 상담 내용의 범주별 비율 (2017년~2021년)

범주	상담 건수 누계	비율(%)
1. 한글 맞춤법	472,995	43
2. 국어 문법	392,496	36
3. 표준어 규정	51,651	5
4. 외래어, 로마자 표기법	41,245	4
5. 언어예절, 언어순화	28,302	3
6. 국어사전	13,859	1
7. 국어사, 문자	6,710	1
8. 기타	98,061	9
합계	1,105,319	100

국민의 언어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립국어원에서는 누리소통망 상담(카카오톡 '우리말 365'), 가나다전화(1599-9979), 온라인 국어 상담(국립국어원 누리집) 등 다양한 경로로 국어 관련 질문에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누리소통망 우리말365는 96,354건, 가나다전화는 59,139건, 온라인 가나다는 37,960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상담 내용을 범주별로 살펴보았을 때, 한글 맞춤법(42.8%)과 국어 문법(35.5%)에 대한 질문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4

국어생활종합상담실 고빈도 질문 열 가지 (2017년~2021년)

순위	질문	답변
1	되/돼 “할머니 손주가 돼/되 드릴게요.” 중에 어느 표기가 맞나요?	‘되어’를 줄여 쓴 말이므로 ‘돼’로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되-’는 어간이라 뒤에 어미가 와야 합니다.
2	에요/예요 “빨래 대신 해 준 게 어디예요/예요.”에서 바른 표기는 무엇인가요?	‘어디예요’를 줄여 쓴 말이므로 ‘어디예요’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3	에/의 “국가에/의 일이 있어”에서 알맞은 조사는 무엇인가요?	용언 ‘있어’를 꾸미는 말이라면 부사격 조사를 붙여 ‘국가에’, 체언 ‘일’을 꾸미는 말이라면 관형격 조사를 붙여 ‘국가의’와 같이 쓰는 것이 맞습니다.
4	로써/로써 “금년으로써/으로써 10년이 되었다.”에서 적절한 표현은 무엇인가요?	‘금년으로써’가 맞습니다. 제시된 문장에서 ‘으로써’는 시간을 셀 때 셈에 넣는 한계를 나타내거나 어떤 일의 기준이 되는 시간임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5	받다/받다 ‘사랑받다/사랑 받다’의 띄어쓰기는 어떤 게 옳은가요?	‘사랑받다’로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받다’는 피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입니다.
6	대/데 “저는 목마르네요/목마르네요.” 중 바른 표기는 무엇인가요?	‘목마르네요’가 바른 표기입니다. 여기서 ‘-는데(요)’는 어떤 일을 감탄하는 뜻을 넣어 서술함으로써 그에 대한 청자의 반응을 기다리는 태도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입니다.
7	므로/므로(씨) “감독이 없으므로/없음으로 제멋대로 행하였다.” 중 바른 표현은 무엇인가요?	‘감독이 없으므로’가 바른 표기입니다. ‘-으므로’는 까닭, 근거를 나타내고, ‘으로’는 수단, 방법을 나타내는데, 여기에서는 까닭, 근거를 나타내는 문맥이므로 ‘-으므로’를 쓰는 것이 바릅니다.
8	못하다/못하다 ‘성공하지 못하다/못하다’에서 바른 띄어쓰기는 어느 것인가요?	‘성공하지 못하다’입니다. 여기서 ‘못하다’는 동사 뒤에서 ‘-지 못하다’ 구성으로 쓰여 긴 부정성을 나타내는 보조동사이므로 붙여 씁니다. ‘성공을 못하다’와 같은 짧은 부정의 띄어쓰기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9	오/요 “모든 건 다 내 탓이오/요.”에서 바른 표기는 무엇인가요?	‘모든 건 다 내 탓이오’로 적는 것이 바릅니다. ‘탓이다’의 하오체 종결형이 쓰인 경우입니다. 하오체 종결형으로 나타내려면 ‘탓이에요’나 ‘탓이어요’로 적어야 합니다.
10	데/데 “먹고사는데/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다.”에서 바른 띄어쓰기는 무엇인가요?	‘먹고사는 데’로 띄어 쓰는 것이 바릅니다. 여기서 ‘데’는 ‘일’이나 ‘것’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참고 문헌

누리집

국립국어원 www.korean.go.kr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kteacher.korean.go.kr
 교육부 www.moe.go.kr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www.liveinkorea.kr
 모두의 말뭉치 corpus.korean.go.kr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세종학당재단 www.ksif.or.kr
 스테디인코리아 www.studyinkorea.go.kr
 에스놀로그(Ethnologue) www.ethnologue.com
 우리말샘 opendict.korean.go.kr
 재외교육기관 포털 okep.moe.go.kr
 재외동포재단 스테디코리아 study.korean.net
 지역어 종합 정보 dialect.korean.go.kr
 표준국어대사전 stdict.korean.go.kr
 한국외국인노동지원센터 k.migrantok.org
 한국국제교류재단(KF) www.kf.or.kr

연구 보고서

『2018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2018, 국립국어원
 『2020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2020, 국립국어원
 『2020년 성인 문해 능력 조사』, 202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0년 점자표기 실태조사』, 2020, 국립국어원
 『2020년 한국수어 활용 조사』, 2020, 국립국어원
 『2020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2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공언어 개선의 정책효과 조사 연구』, 2021,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
 “2021년 교육기본통계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1. 8. 26, 교육부



국립국어원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